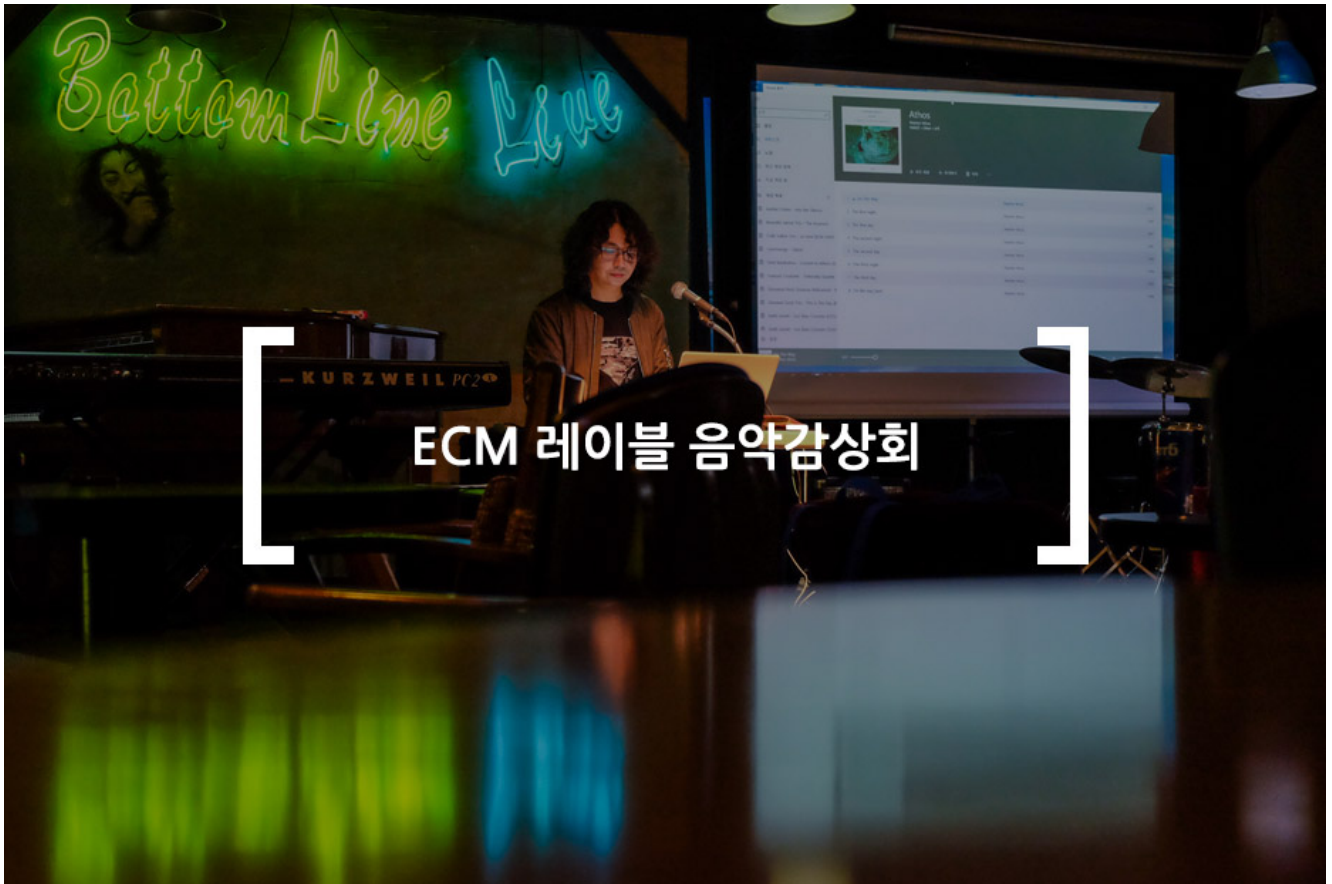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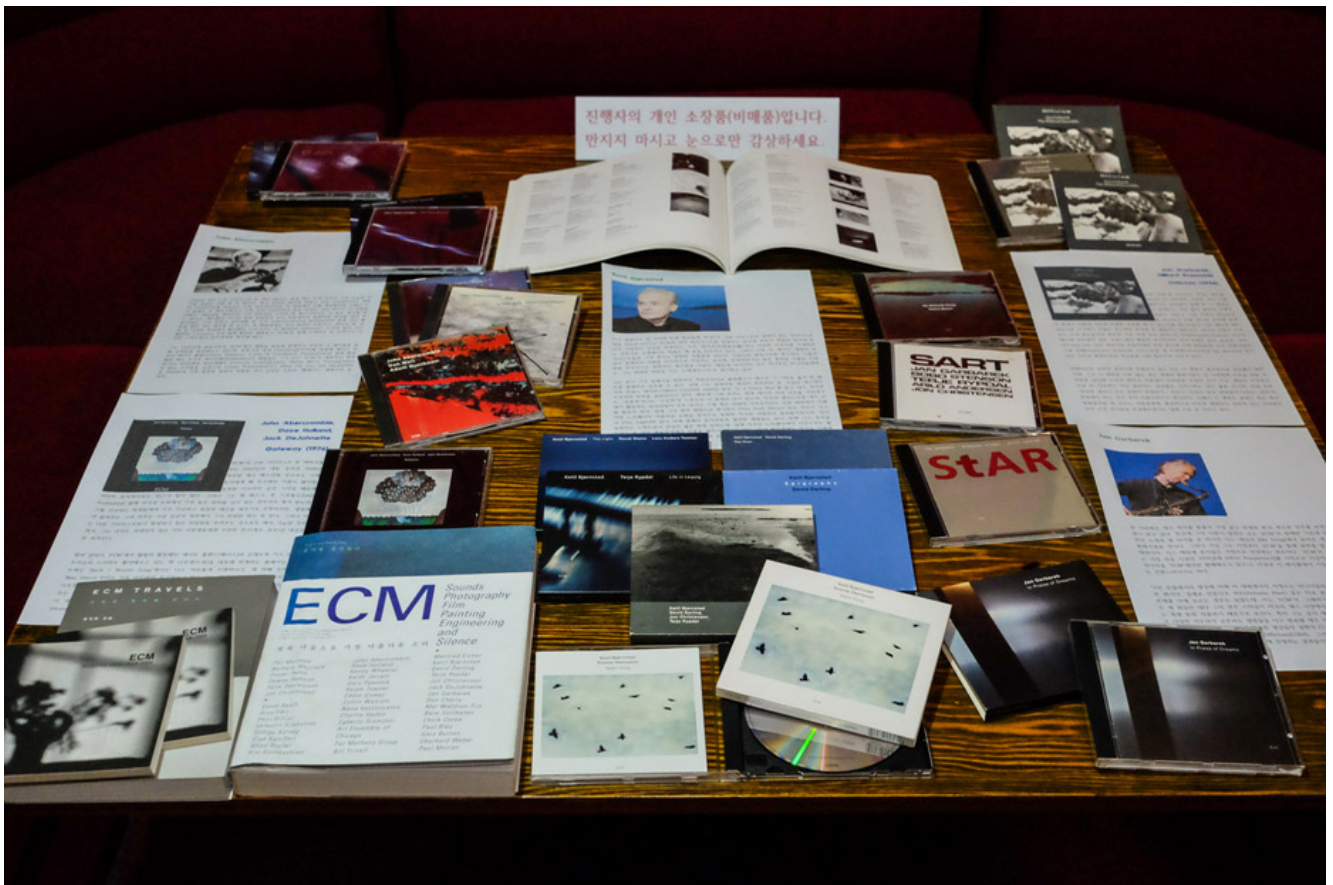


3월 11일 ECM 레이블 음악감상회































ECM (Germany, 1969~)

지금까지도 CEO로서 굳건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창립자이자 베테랑 필리모나 오케스트라 출신의 만프레드 아이허(Manfred Eicher)가 1969년 16,000마르크(지금의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2,6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부모 직전의 레이블 'Japo'를 인수하면서 별 거사 없이 발걸음을 시작한 ECM 레이블은 지금은 현대 재즈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을 자랑 중에 있다.

ECM의 설립 모토는 "The Best Sound Next To Silence" 번역하자면 "절대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지난 2013년 인사동에서 열렸던 ECM 전시회의 제목 자체가 이 레이블의 모토를 그대로 직역했던 것. 클래식계에서 활동했던 그녀의 특장이 녹음에서도 그대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재즈 레이블이 고음역을 강조해 소리의 화려함을 채워주는 것에 반해, ECM은 현상 그대로 혹은 중음역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소리의 깨끗함을 사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클래식의 녹음 방식이 재즈에 적용된 것으로 최대의 연주자 앞에서 듣는 듯한 현장감을 전달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클래식 앨범이 주로 제작되는 [ECM New Series] 앨범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 안내 문 ※

현재 'ECM' 음악감상회 + 전시회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진행 중입니다. (오후 7시~9시)













* □□□ □□□ □□□ □□ □□ □ □□□□